

‘자연이 그린 작품’ 김아타 ‘자연하다’ 프로젝트 첫선



김아타

자연이 스스로 그린 회화 또는 자연이 카메라로 가능해 캔버스를 감광시킨 사진 사진작가로 세계적 명성을 쌓은 김아타(66)가 2000년대 들어 돌연 캔버스 작업을 시작한 이후 예술과 자연을 사유한 결과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김아타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 부다가야, 칠레 아타카마 사막, 미국 인디언 거주지, 일본 히로시마 등 세계 각지와 제주 바다, 강원도 숲속 등 국내 곳곳에 캔버스를 세웠다. ‘자연하다’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빛, 공기, 비, 눈, 모래, 먼지, 나무 등이 스스로 캔버스에 색과 형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경기 남양주시 모란미술관이 재개관 기념으로 개최하는 김아타 초대 전 ‘자연하다 ON NATURE’의 전시작들은 캔버스가 세워졌던 곳들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왔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인 부다가야에 세워진 캔버스는 ‘힘든 땅’을 받아들인 듯 천이 상했고, 짙은 무채색으로 채워졌다. 캔버스 틀을 따라 난 열린 격자무늬는 천이 겪었던 고행을 보여주는 듯하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하고 바람이 센 곳으로 알려진 아타카마 사막에 세워진 캔버스에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수없이 부딪혔다.

강원도 홍천의 숲에서 땅을 3m 정도 파고 묻었던 캔버스는 흙과 미생물 등으로 작은 형상을 나타냈고, 제주 바다에 담겼던 캔버스 위에는 물고기와 해초 등이 그림을 그렸다.

김아타는 “뉴욕, 런던, 모스크바 등 인간의 역사를 가능할 수 있는 도시 12곳을 순회하면서 한 도시를 1만 컷의 사진을 촬영해 하나로 포개는 ‘온에어 프로젝트 언달라 시리즈’를 지독하게 했다”며 “그 프로젝트를 다하고 나니까 어느 날 나 자신이 자연에 가 있었다. 그래서 캔버스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캔버스는 자연과 스스로 공명한다”고 강조한 작가는 “내 몸의 상함을 통해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죽음을 기억한다’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작가는 자연이 그린 그림을 두고 “큰 틀에서 보면 사진이다. 포토그래프는 ‘빛 그림’이란 뜻이다. 캔버스는 완벽한 아날로그 필름으로서, 온 몸을 자연에 노출하는 것이다. 2년 동안 자연을 받아들인 빛 그림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연을 거대한 카메라로 사용해 자연의 빛을 렌즈와 조리개를 통과시키지 않고, 캔버스를 필름으로 삼아 담아낸 사진이기도 한 것이다. 존재에 대한 감응의 지평이 열리는 곳에 캔버스를 세워왔다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 모란미술관의 야외 전시장에 캔버스를 세워두고 ‘모란하다’로 명명했다.

전시일정(장소) 10월 19일까지(모란미술관)
관람료 일반 7천 원
☎ 031-594-8001~2

‘대세 일러스트레이터’ 자그놀리 국내 첫 전시회

세종문화회관은 ‘대세 일러스트레이터’ 올림피아 자그놀리 특별전 ‘Life is Color’를 연다. 자그놀리 특유의 신선한 형태, 색다른 관능미를 선보인다.

이탈리아 출신인 작가는 2008년부터 매혹스럽고 다채로운 색감의 작품으로 미국 뉴욕의 미디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잡지 뉴욕커, 뉴욕 지하철 등과 협업을 진행한 작가는 프라다, 디올, 펜디 등 럭셔리 브랜드와 작업하면서 명성을 높였다.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오브제, 키네틱 아트, 비디오 클립 등 작품 150점을 선보이며 11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작가가 서울 전시를 특별 제작한 유화 연작을 선보이는 ‘The Kiss’ 섹션이 주목된다.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작품들을 통해 두 사람, 두 가지 컬러의 완벽한 만남을 보여주려 했다고 한다. 상상 속 인물들을 그린 초상화와 사람들 간의 만남, 나눔의 순간, 애정과 자아 성찰 같은 주제를 담은 작품들에서는 작가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패션 브랜드를 위해 작업한 직물을 비롯해 카푸치노 컵, 쇼핑 가방, 책 커버 등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된다.

작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시를 위해 콜라베이션 작업,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삽화, 한국 전시를 기념하며 특별히 만든 작품까지 수년간 일해온 작품 중 심사숙고해서 선별했다”고 말했다.



Illustration on young people and technology for Italian newspaper La Repubblica, 2016

전시일정(장소) 10월 1일까지(세종문화회관)
관람료 성인 2만 원, 청소년 1만4천 원, 어린이 1만1천 원
☎ 02-399-1000



포 김과 그의 하이신스마코 금강앵무, 찰리 Po Kim and his hyacinth macaw, Charlie.

1세대 재미 화가 포 김의 ‘지상의 낙원’

미국 뉴욕 화단에서 60년 동안 활동했던 1세대 재미 화가 포 김(본명 김보한·1917~2014)의 후기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학교재 갤러리에서 열리는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 전시는 포 김이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제작한 회화 23점을 선보인다.

조선대 미술대학 초대 학과장을 지냈던 작가는 1955년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원으로 초청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1960년대까지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몰두했다. 두 번째 부인을 만난 1970년대는 정물화를 그리며 사실주의로 돌아갔고, 1980년대 후반부터 대형 캔버스 작업을 시작했다. 사람과 동식물의 형상을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그려내 화폭 위에 낙원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전시작 ‘따스한 섬’(1998)에는 사람과 말, 새, 야자수 등이 등장한다. 난색 계열의 아크릴 물감은 캔버스 위에 속도감 있게 붓질 돼 섬 풍경은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듯하다. 포 김은 뉴욕의 자택에서 새 20여 마리를 키웠고, 작품에도 자주 새들을 등장시킨다. 전시작 ‘날아가는 새와 물고기’(2006)는 새와 물고기가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전시일정(장소) 6월 12일까지(학교재)
관람료 무료
☎ 02-720-1524

신수원 감독이 선배 영화인에게 바치는 헌사 '오마주'



영화 '오마주' 1962년 11월 3일 영화 '여관사가' 개봉했다. 홍은원(1922~1999)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탄탄한 짜임새와 세심한 여성 심리 묘사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홍 감독은 1946년 스크립터로 영화를 시작해 1959년에는 최초의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됐다. 감독으로는 박남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감독으로 영화사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홍 감독은 1965년까지 세 편의 영화만을 남겼다.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찍으면 검열을 걱정해야 하는 때였다. 신수원 감독은 홍 감독이 투자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김기영이나 이만희 못지않은 거장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다. 영화 '오마주'는 홍 감독을 비롯한 선배 영화인들에게 신수원 감독이 바치는 헌사다. 영화 속 지원(이정은 분)도 세 번째 영화를 막 완성했다. 그러나 상영관을 찾은 관객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어벤져스'는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에 달려가서 보는 아들도 영화가 재미없다고 타박한다. 남편(권해효)은 늘 밥 타령이다.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 영화감독으로서도, 인생의 중반을 지나가는 여성이자 엄마·아내로서 삶도 위기다. 지원은 아르바이트 삼아 소리와 일부 영상이 소실된 영화 '여관사' 더빙 일을 한다. 사라진 필름을 찾으려고 감독의 딸과 스태프·배우들을 수소문한다. 영화는 그렇게 현실과 1960년대 충무로를 오간다. 혹시나 해서 찾아

간 소도시의 낡은 극장에서는 두 시대가 겹친다. 폐업을 앞두고 이제 전기마저 끊겼지만, 옛날 극장 특유의 분위기와 영사기 돌아가는 소리는 영화 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 그래서 '오마주'는 영화인과 시네필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에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 지원은 신 감독의 자전적 정서가 반영된 인물로 보인다. 신 감독은 장편 데뷔작 '레인보우'(2010)에서 감독지망생 지원(박현영)을 통해 영화 인생의 출발점을 돌아봤었다. 신 감독은 "언젠가 '레인보우 2' 같은 영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며 "영화 속에서 지원은 시나리오를 힘들게 썼지만 ('오마주'는) 2주 만에 스토리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들이 중심이었던 곳에서 버티며 살았던 용감한 여성 감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석처럼 빛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내 주변에 있는 그림자 같았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영화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극배우 출신 이정은은 첫 단독 주연을 맡았다. 신 감독은 "기생충과 미성년을 보면서 연기를 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살아 있는 캐릭터 그대로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왜 이렇게 뒤늦게 주연을 하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독 신수원
출연 이정은, 권해효, 탕준상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5월 26일



플레이그라운드 영화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는 일곱 살 노라(마야 반데베크)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제 막 입학한 노라의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노라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오빠 아벨(군터 뒤레)에게 의지한다. 쉬는 시간에도 아벨과 함께 있고 싶지만, 아벨은 거부한다. 학교폭력을 철저히 당사자의 시선에서 바라본다. 언제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는 학교가 가족 바깥의 세상과 맞닥뜨리는 사실상 첫 공간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프랑스어 원제는 'un monde'(세계).

감독 로라 완델
출연 마야 반데베크, 군터 뒤레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5월 25일

브로커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다. 송강호가 세탁소를 운영하며 늘 빛에 시달리는 '브로커' 상현역을 맡았다. 약하지만, 허술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브로커다. 보육원에서 자라 버려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또 다른 브로커 동수는 강동원이 연기한다. 가족영화의 대가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일본인 감독이 연출했지만, 배우나와 이지는(아이유) 등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고 국내 영화사가 제작한 한국 영화다. 제75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송강호, 강동원, 배우나, 아이유, 이주영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6월 8일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터전이었던 이슬라 누블라 섬이 파괴되자 공룡들은 섬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출몰한다. 인류는 위협적 생명체의 등장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는다. 인간과 공룡은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걸고 사투를 벌인다.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자,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연출작으로 시작한 쥬라기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다. 크리스 프랫, 브라이스 델러스 하워드 등 전편 주연들이 출연한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총괄 제작으로 참여했다.

감독 콜린 트레보로
출연 크리스 프랫, 브라이스 델러스 하워드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6월 1일

헤어질 결심 산에서 벌어진 변사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를 만나고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다. 서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료를 보이지 않는다. 해준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대한다. 로맨스와 서스펜스를 결합한 영화다.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연출한 작품이자, 통산 네 번째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이다.

감독 박찬욱
출연 탕웨이, 박해일, 이정현, 고경표, 박용우
등급 미정
개봉 6월 29일

'히어로'의 전설은 계속된다 임영웅 광주 콘서트

올해 상반기 가요계 최대 이슈메이커인 가수 임영웅이 광주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IM HERO)'의 열기를 이어간다. 그는 5월 2일 발표한 동명의 정규 1집을 일주일 만에 한터차트 기준 110만 장을 팔아치워 역대 솔로 가수 신기록을 썼다. 그룹도 아닌 솔로 가수가 일주일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전 세계 K팝 붐을 타고 해외 팬이 수만 장씩 음반을 구매하는 아이돌 그룹과 달리, 트로트 시장 특성상 국내 팬덤으로만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영웅은 게다가 음반 매출 증대를 위해 팬 사인화나 영상통화회 같은 이벤트를 전혀 열지 않고 100만 장 판매고를 올려 가요계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임영웅은 5월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신보를 두고 "저뿐 아니라 팬들도 정말 오래 기다린 음반"이라며 "정규 음반은 처음이라 열심히 준비했고 다채로운 곡을 담으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노래를) 다 만들었다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많았다"며 "모든 게 그러하듯 완벽한 만족은 없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그래도 좀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뒷얘기를 전한 바 있다.

임영웅이 공연에서 들려줄 정규 1집은 사랑과 사랑, 세상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이한 음반이다.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애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발라드로, 가수 이적이 작사·작곡에 참여하고 정재일이 스트링 편곡을 맡아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됐다.

음반에는 타이틀곡 외에 트로트계 대선배 설운도가 작사·작곡한 '사랑해요 그대를', 자전거탄풍경의 송봉주가 곡 작업에 참여한 '연애편지', 동명의 드라마에서 선공개된 '우리들의 블루스' 등 총 12곡이 빼곡히 실렸다.

지난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이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히어로(HERO)',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도망가' 등 발표하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첫 정규 음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높였다.

임영웅은 5월 6일 경기도 고양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시작했다. 이 고양 콘서트에서는 3일간 2만3천 명의 팬들이 그의 음악을 마음껏 즐겼다. 그는 5월 8일 공연에서는 관객을 향해 큰절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연이던 만큼, 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버스를 대절해 공연장에 집결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공식 굿즈를 사려는 줄도 끝이 보이지 않도록 이어졌다.

임영웅은 콘서트를 두고 "전국투어에서 팬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소리 지르고 '빼창'하고 가까이서 뽀는 게 소원"이라며 "스케일, 내실, 즐거움 모두를 갖춰서 (관객이) 댁에 돌아가실 때 '진짜 잘 놀다 간다'는 생각이 들게끔 준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연일정(장소) 6월 10~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관람료 VIP석 15만4천 원 R석 13만2천 원 S석 12만1천 원
☎ 1544-6399



[물고기뮤직 제공]

다시 만나는 '테스형'...나훈아 데뷔 55주년 전국투어



[에이라-에오카 제공]

'테스형' 나훈아가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오랜 기간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을 만난다. 나훈아는 6월 11일 '고향'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대전, 창원, 인천, 대구, 안동, 고양, 서울, 천안, 광주 등 총 10개 도시에서 23차례 공연을 연다. 부산 출신 나훈아는 1968년 '내 사랑'과 '약속했던 길로' 데뷔해 '물레방아 도는데', '고향역', '영영', '무시로', '잡초', '사랑', '홍시' 등을

히트시키며 정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공연을 통해 주요 히트곡은 물론이고, 최근 발표한 신곡도 들려줄 전망이다. 나훈아는 올해 2월 데뷔 55주년을 기념하는 앨범 '일곱 빛 향기를 내놓고, 수록곡 '맛짱'과 '체인지'(Change)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특히 '체인지'는 나훈아의 데뷔 후 첫 댄스 뮤직비디오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공연일정(장소) 6월 11~12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 2A홀, 25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관람료 R석 16만5천 원 S석 14만3천 원 A석 12만1천 원
☎ 1544-6399

아이즈원 출신 권은비 첫 솔로 콘서트



[올림픽엔터테인먼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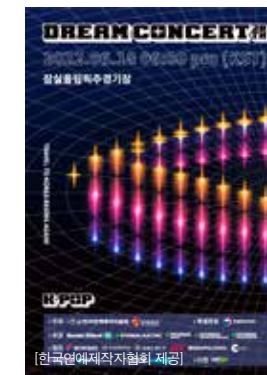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가수 권은비가 첫 솔로 콘서트 '시크릿 도어스'(Secret Doors)를 연다. 소속사 올림픽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콘서트 제목은 권은비와 팬들이 함께 여는 비밀의 문이라는 의미"라며 "권은비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와 라이브로 다채로우면서도 환상적인 공연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은비는 2018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거쳐 걸그룹 아이즈원으로 데뷔해 리더를 맡았다. 지난해 아이즈원

해체 이후에는 솔로 가수로 데뷔해 '도어'(Door), '글리치'(Glitch)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다.

공연일정(장소) 6월 18~19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
관람료 R석 13만2천 원 S석 12만1천 원
☎ 1544-1555

NCT 드림-레드벨벳-아이브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드림콘서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내로라하는 K팝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27년 역사의 드림콘서트가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드림콘서트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1995년 시작됐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올해 드림콘서트에서는 그룹 NCT 드림과 걸그룹 레드벨벳을 비롯해 드림캐쳐, 스테이씨, 아이브, 엔믹스, 오마이걸, 이무진 등 유명 가수 25팀이 출연한다.

올림픽주경기장은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연일정(장소) 6월 18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 1588-7890

소극장 물들이는 노을의 하모니...카페 유월



보컬그룹 노을이 약 3년 만에 소극장 콘서트로 팬들을 찾아간다. 노을은 매년 6월 소극장 콘서트 '카페 유월'을 열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대면 공연으로 이 행사를 재개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2002년 데뷔한 노을은 '그리워 그리워', '전부 너였다', '붙잡고도', '청혼'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누렸다.

공연 관계자는 "진한 여운이 남는 품미 있는 커피처럼 따스한 감성으로 오래도록 감동이 남을 공연을 준비 중"이라며 "관객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소개했다.

공연일정(장소) 6월 18~19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
관람료 VIP석 13만2천 원 R석 12만1천 원
☎ 1544-1555

웃는 남자

베트맨 시리즈의 '조커'처럼 입술 끝에서 양 뺨 위로 쪽 찢어진 붉은 흉터.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기이하게 찢어진 얼굴 때문에 멀리서 보면 늘 미소 짓는 듯 보이는 '웃는 남자'가 2년 만에 다시 관객을 만난다. '웃는 남자'는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EMK뮤지컬컴퍼니가 만든 창작 뮤지컬이다. 어린 시절 인신매매단에 의해 납치된 뒤 야만적인 수술로 평생 웃을 수밖에 없는 흉측한 얼굴을 갖게 된 채 유랑극단에서 광대 노릇을 하는 그윈플렌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번에는 박효신·박은태·박강현 이른바 '3박'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았다.

초연에 참여한 박효신이 4년 만에 돌아왔고 '지킬 앤 하이드', '프랑켄슈타인' 등 대작 주연으로 활약해 온 박은태와 초연과 재연에 모두 참여했고 '하테스타운', '모차르트!' 등에서도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은 박강현이 주인공인 그윈플렌 역으로 캐스팅됐다. 또 인간을 혐오하지만 그윈플렌을 거둬 키우는 우르수스 역은 민영기·양준모, 팜프와탈 조시아나 역은 신영숙·김소향,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윈플렌을 보듬어주는 데아 역은 이수빈·유소리가 맡았다.

웃는 남자는 2018년 월드 프리미어로 개막하자마자 한 달 만에 누적 관객 10만 명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와 한국

뮤지컬 어워드, 이태일리 문화대상, 골든티켓어워드 등에서 작품상을 휩쓸어 한국 창작 뮤지컬 분야에서 수작으로 꼽힌다. 2020년 재연에 이어 2년 만에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총괄 프로듀서는 엄홍현, 극작과 연출은 로버트 요한슨, 작곡은 프랭크 와일도훈 등 세계적인 창작진이 참여해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일정(장소) 8월 22일까지(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6만~15만 원
☎ 1544-1555



베어 더 뮤지컬

소년들의 정체성 혼란과 고민을 다룬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베어 더 뮤지컬'은 보수적인 가톨릭계 고등학교 성 세실리아에서 벌어지는 마약 투약, 자살, 동성애 등 파격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으로, 록, 팝 발라드, 가스펠 등 다양한 음악을 통해 청소년의 고민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신예 등용문'으로도 유명하다. 주인공 피터 역에 박정원, 김지훈, 윤석호가, 피터와의 관계로 혼란스러워하는 제이스 역에는 유현석, 윤승우, 김제하가 캐스팅됐다. 엇갈린 사랑으로 고통받는 아이비 역은 임예진, 신한결이 맡았다. 이 가운데 윤석호, 김제하, 신한결은 1천500대 1 경쟁률을 기록한 오디션을 통과한 신인 배우다.

공연일정(장소) 9월 18일까지(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6만6천~8만8천 원
☎ 1588-5212

포미니츠

독일 영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포미니츠'가 오는 21일 1년 만에 다시 관객 곁으로 돌아온다. '포미니츠'는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이 만든 동명의 독일 영화를 바탕으로 지난해 배우 양준모가 예술감독을 맡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루카우 교도소를 배경으로, 천재 피아니스트이지만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제니와 여성 재소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트루드 크뤼거의 이야기를 담았다. 실존 인물에 기반을 둔 80대 노인 크뤼거 역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 한국인 최초로 '김' 역할을 맡았던 이소정과 '스위트홈' '갯마을 차차차' 등으로 친숙한 이봉련이 캐스팅됐다. 제니 역은 한재아와 홍서영이 맡으며, 이외에도 류제윤, 이동수, 조영태, 이승재, 양지연, 노지연, 김하연, 안현아, 김병영이 출연한다. 특히 이번에는 여성 피아니스트 김경민이 단독으로 무대에서 피아노 독주곡 중심으로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서 새로운 감동을 줄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8월 14일까지(국립정동극장)
관람료 전석 7만 원
☎ 02-751-1500

프랑스 명소프라노 상드린 피오 첫 내한 공연



[상남문화재단] 소프라노 상드린 피오 2 © Sandrine Expilly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프라노로 바로크 음악 전문가인 성악가 상드린 피오가 피아니스트 에릭 르사주와 함께 내한 리사이틀 카메라를 갖는다.

상드린 피오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프라노로 지난 30여년간 바로크 오페라와 가곡 해석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점해온 성악가다. 이번이 첫 내한 공연이다. 하프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피오는 타고난 목소리를 인정받아 성악으로 전향, 파리국립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했다. 이후 바로크 음악 전문가인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에게 발탁돼 헨델, 라모, 모차르트 오페라와 종교음악에서 활약해왔다. 특히 피오는 예술가곡의 시적인 가사와 감수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소프라노로 세계에 두루 팬을 거느리고 있다. 데뷔 이래 꾸준히 가곡 리사이틀과 음반 활동을 해왔다.

이번 공연은 2017년 발매한 앨범 '카메라' 수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쇠베, 슈만, 드뷔시, 볼프, 프레빈 등 다양한 시대와 언어의 가곡을 아우른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릭 르사주도 함께 한다. 섬세한 음향과 감성적 연주로 명성이 높은 르사주는 이번 공연에서 상드린 피오와의 앙상블 외에도 슈만 '꽃의 곡', 거슈윈의 '3개의 프렐류드' 등 연주곡을 선보인다.

공연일정(장소) 6월 26일 오후 5시 상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 1544-8117



[상남문화재단] 피아니스트 에릭 르사주 ©Jean-Baptiste Millot

개성 넘치는 피아니스트 유자왕 첫 내한 리사이틀

개성 넘치는 연주와 외모로 세계적 인기를 끈 피아니스트 유자왕이 베토벤, 쇼베르크, 알베니스, 카스푸틴 등의 곡들로 첫 내한 리사이틀을 갖는다.

베이징 출신인 유자왕은 윤디리, 량량과 함께 중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꼽힌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의상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채 탁월한 테크닉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내림 마장조를 시작으로 쇼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 리게티의 에튀드, 스크랴빈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올림 바단조, 알베니스의 이베리아 모음곡 3권 3번, 카스푸틴의 전주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공연일정(장소) 6월 19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10만 원, B석 8만 원, C석 6만 원
☎ 02-541-3173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국내 초연

국립오페라단이 창단 60주년을 맞아 베르디의 대작 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I vespri siciliani)를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올린다. '신포니아'로 불리는 이 작품의 서곡과 주요 아리아는 자주 연주돼 왔지만, 국내 무대에서 전막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처음. 1282년 프랑스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던 시칠리아인들이 부활절 저녁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독립투쟁에 나선 시칠리아 만중 사건을 다룬 시대극이다.

총 5막으로 구성된 대작으로, 베르디 오페라 중 가장 웅장한 서곡과 주인공 엘레나가 부르는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등의 주요 아리아가 유명하다. 특히 '신포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오페라의 서곡은 독립적인 관현악 작품으로 연주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외세의 억압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개인이 겪는 비극의 서사를 세밀한 심리묘사와 갈등을 통해 표현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정상급 성악가들이 나선다. 시칠리아의 공녀이자 아리고의 연인 '엘레나' 역은 소프라노 서선영과 김성은이, 조국애와 부정(父情)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칠리아 저항군 '아리고' 역에는 테너 강요섭과 국윤중이 나선다. 프랑스 총독이자 아리고의 친아버지인 '몽포르테' 역에는 바리톤 양준모, 현명원이 맡고, 시칠리아인들이 존경하는 독립투사 '프로치다' 역은 베이스 최웅조와 김대영이 맡는다.

홍석원이 지휘봉을 잡고, 2016년 국립오페라단 '올랑도 핀토 파초'를 통해 개성 있는 해석을 보여준 이탈리아 연출가 파비오 체레시가 연출한다. 체레시는 2016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즈가 선정한 영디렉터 상을 받으며 촉망받는 젊은 연출가로 급부상했다. 이번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국내 초연은 내달 4일 오후 3시 국립오페라단의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인 크노마이오페라와 네이버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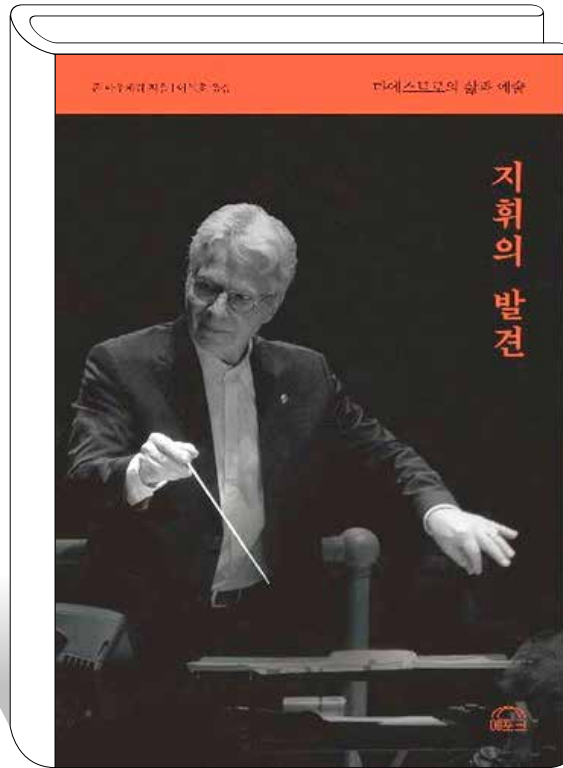
공연일정(장소) 6월 2-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8-19일 상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9만 원, B석 6만 원, C석 4만 원, D석 2만 원 (예술의전당)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상남아트센터)
☎ 1588-2514



어느 날 뒤바뀐 삶, 설명서는 없음

2001년 풀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비평가이자 작가인 저자가 겪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기회에 관한 에세이다. 반려견 툴라와 함께하는 생활, 급격히 나빠진 다리 건강 이야기다. 저자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공포감을 느낀다. 절친한 동료 작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과 10년 넘게 키운 반려견 '클레멘타인'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불편한 다리도 더 나빠지면서 삶을 되돌아본다. 저자는 새 가족으로 맞이한 툴라에게 애정을 쏟는다. 그러나 툴라는 옷과 팔뚝을 물어뜯고, 함께 걷다가도 빠른 속도로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며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고찰하고, 세상을 떠난 엄마를 떠올린다. 저자는 질병은 없애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정체성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속도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일 콜드웰 지음 / 이윤정 옮김 / 김영사 펴냄 / 1만4천 800원 / 272쪽



지휘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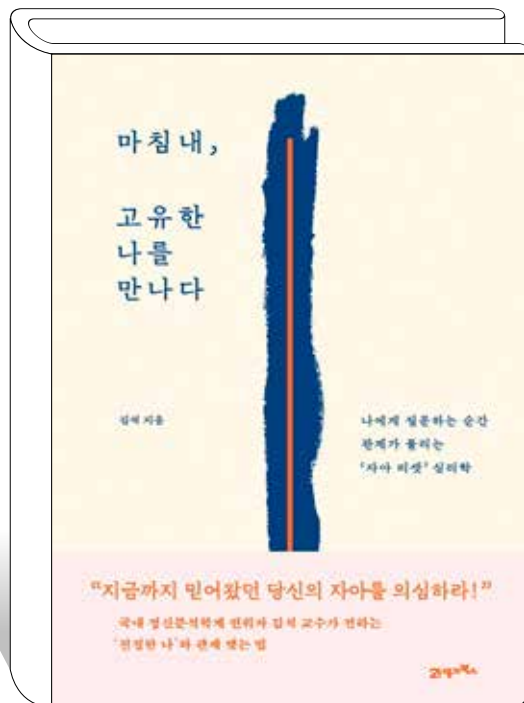
세계적 지휘자인 존 마우체리가 '클래식의 발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 선보이는 책.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을 책임지며 지휘자로 활동해온 경험을 되돌아보고, 번스타인·카라얀·토스카니니 등 선배 지휘자와 스승들의 발자취를 꼼꼼히 기록해 쓴 '지휘의 일대기'다. 전작 '클래식의 발견'이 음악 전반에 관한 길잡이었다면, 이 책은 저자가 평생 종사한 지휘 분야의 신비하고도 고독한 세계의 비밀을 엿보게 한다. 카라얀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지휘자의 이미지는 직업의 극히 작은 일면일 뿐이다. 경력과 명성을 쌓아 음악감독 직책을 맡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화려한 삶에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나 일이 있으면 있어서 괴롭고, 없으면 없어서 괴로운 삶은 여전하다. 저자는 "지휘자란 막대한 도전과 주변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 실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존 마우체리 지음 / 이석호 옮김 / 에포크 펴냄 / 2만 원 / 552쪽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지난 2월 별세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2010년 11월 펴낸 책의 개정판이다. 오래전 작고한 어머니를 추억한 산문집으로, 개신교 신앙 고백에 관한 인터뷰는 빠지고 산문으로만 이뤄졌다. 이번에 빠진 인터뷰 '나는 피조물이었다'는 '이어령 대화록 시리즈'에 담겨 출간될 예정이다. 출판사 측은 "저자는 평소 개인의 신변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적 체험이면서도 보편적인 우주를 담은 이야기들로 한 권의 책을 엮었으면 하는 저자의 생각과 '어머니의 굴'처럼 일부만 공개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의 전문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소망을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이어령 지음 / 열림원 펴냄 / 1만 5천 원 / 232쪽



마침내, 고유한 나를 만나다

국내 교수진이 참여한 '인생명강' 시리즈 여덟 번째 책. 프랑스철학회 부회장,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김석 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책은 나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심리 처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프로이트, 라캉, 들뢰즈, 플라톤 등 철학자들이 '자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자아를 이루는 정체성과 무의식은 어떻게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내면의 불안과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삶의 태도를 지양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한다. 책은 자아를 직시하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자아 리셋'을 권고한다. 저자는 "이상화된 자아가 아니라 고유한 나를 발견하고 가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상화된 자아가 진짜 나의 모습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석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 1만6천 원 / 248쪽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음식 평론가가 한 일간지에 연재한 음식 관련 칼럼을 추리고 다듬었다.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등 우리에게 친숙한 60여 가지 식자재를 중심으로 음식 재료를 세심하게 고르는 법, 저장하고 가공하는 법 등에 관해 소개했다. 책은 재료의 맛을 풍부하게 하는 향신료, 요리에 쓰이는 기본 단위, 기본 채식 요령 등도 이야기한다. 한식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올리브, 오이 피클 등이 나물이나 국수와 만났을 때 오히려 맛을 돋워준다는 저자만의 비밀 레시피도 전한다.

이용재 지음 / 푸른숲 펴냄 / 1만 6천 800원 / 316쪽



어른이 먼저 읽는 어린이 클래식

'클래식 스승'인 삼촌과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클래식과 가까워지는 법을 소개한다. 음악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나성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동네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다. 외삼촌은 그에게 녹음테이프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 담긴 클래식 음악은 말없이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삼촌이 준 카세트테이프는 전문성보다는 사랑에서 나온 작품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클래식 음악은 무언가를 사랑할 기회였다. 그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처럼 좋아하는 것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꼭 클래식이 아니어도 좋다. 책에서 소개하는 클래식 작곡가·연주자들의 진심이 방법을 가르쳐주길 기대한다. 책에 소개된 클래식 음악을 빠짐없이 들어볼 수 있도록 141개의 QR코드 음원과 설명을 담은 별책 부록을 준다.

나성인 지음 / 풍월당 펴냄 / 2만 9천 원 / 344쪽